

# 김도영 '타이거즈 최초' 30홈런-30도루-100타점-100득점

## KIA 정규 시즌 '매직 넘버' 6

KIA, 키움에 5-2 역전승  
80승... 우승 확률 94.7%  
김도영, 韓 역대 3호 기록



'야구 천재' 김도영  
이 또 새로운 대기록을  
수립하며 호랑이 군단  
의 정규 시즌 우승에

필요한 매직 넘버를 6으로 줄였다.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80승 고지를 선점하  
며 우승 확률 94.6%를 확보했다.

KIA는 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키움히어로즈와 2024 신한 SOL  
뱅크 KBO 리그 시즌 14차전에서 5-2 역  
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최근 4연승  
을 달린 KIA는 올 시즌 80승 2무 50패  
(승률 0.615)를 기록하며 매직 넘버를 6  
까지 줄였다.

이와 함께 KIA는 올 시즌 80승 고지를  
선점했다. 역대 KBO 리그(단일리그 기  
준)에서 가장 먼저 80승을 이룬 팀의 정  
규 시즌 우승 확률은 19회 중 18회로 무  
려 94.7%에 이른다.

KIA는 최근 이어왔던 흐름대로 투타  
에서 균형 잡힌 활약을 보였다. 마운드에  
서는 선발 양현종이 7이닝 1실점으로 하  
이 퀄리티스타트(7이닝 이상·2자책점 이  
하) 투구를 펼쳤고 장현식(0.2이닝 1실  
점)과 박도규(0.1이닝 무실점), 정해영  
(1이닝 무실점)이 2이닝을 최소 실점으  
로 막아냈다.

양현종은 1회초 선두타자 장재영을 좌  
익수 플라이로 처리한 뒤 이주형에게 2루  
타, 송성문에게 안타를 허용하며 1사 1-3  
루 위기를 맞았다. 이어 김혜성에게 희생  
플라이를 내주며 선제 실점했다.

선제 실점 직후 양현종은 영점을 맞췄  
다. 2회초와 3회초, 4회초 수비를 모두  
삼자범퇴로 틀어막았고 5회초 1사 후 박  
수중에게 볼넷을 내줬으나 김재현과 장



KIA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오른쪽)이 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키움히어로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  
즌 14차전 8회말 1사 2루에서 역전 적시 3루타를 때리며 30홈런-30도루-100타점-100득점을 달성했다. KIA타이거즈 제공

재영을 연속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  
다. 이어 6회초와 7회초 수비에서 다시  
삼자범퇴를 이끌어내며 83구로 7이닝을  
정리했다.

상대 선발 아리엘 후라도 역시 7.1이닝  
4실점(3자책)으로 퀄리티스타트 투구를  
펼치면서 경기는 투수전 양상으로 전개  
됐다. KIA 타선은 1회말 득점 기회를 만  
들지 못한 뒤 2회말 1사 후 김선빈의 내야  
안타와 이우성의 안타로 1-3루 기회를 맞  
았으나 한준수가 삼진, 최원준이 땅볼로  
물러나며 동점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3회말 선두타자 박찬호의 땅볼  
타구에 3루수 고영우의 포구 실책이 나온  
뒤 소크라테스의 땅볼 타구에 다시 같은  
위치에서 송구 실책이 나오며 무사 1-3루  
기회를 맞았고 김도영이 땅볼로 아웃 카  
운트와 점수를 맞아 1-1 동점을 이  
뤘다.

KIA 타선은 4회말과 5회말, 6회말을

모두 삼자범퇴로 물러난 뒤 7회말 선두  
타자 최형우의 안타와 김선빈의 희생 번  
트로 1사 2루 기회를 만들었으나 이우성  
이 삼진, 한준수가 땅볼로 물러나며 역전  
에 실패했다.

다시 리드를 허용한 8회말, 김도영이  
해결사 역할을 확실히 했다. 선두타자 최  
원준의 안타와 박찬호의 희생 번트로 1사  
2루 기회를 만든 뒤 소크라테스의 적시타  
로 2-2 동점을 이뤘다.

이어진 1사 2루에서 김도영이 3루수  
방면으로 때린 깊숙한 타구가 베이스를  
맞고 굴절돼 외야로 향하는 행운이 따랐  
고, 역전 적시 3루타가 되며 3-2로 균형  
을 뒤집었다.

김도영은 역전 적시 3루타로 올 시즌  
30홈런-30도루-100타점-100득점을 기  
록했다. 30홈런-30도루-100타점-100득  
점을 기록한 것은 타이거즈 역사상 최초  
로 KBO 리그 역사를 통틀어도 박재홍과

에릭 테임스에 이어 세 번째다.

역전에 성공한 KIA 타선은 후라도가  
강판되자 더 강한 화력을 자랑했다. 이어  
진 1사 3루 기회에서 나성범의 희생 플라  
이로 4-2를 만들었고, 서건창이 안타를  
때린 뒤 김선빈이 적시 2루타를 날리며 5  
-2로 승리를 확정 지었다.

이범호 감독은 경기 후 "양현종이 비록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7이닝을 최  
소 실점으로 막아내며 선발 역할을 정말  
로 잘 해줬다"며 "정해영도 든든히 팀 승  
리를 잘 지켜줬다"고 총평했다.

이어 "공격에서는 한 점 뒤진 8회말 공  
격에서 소크라테스의 동점 적시타와 김  
도영의 결승타, 김선빈의 썩기타까지 나  
오면서 3점 차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며  
"김도영의 30홈런-30도루-100타점-  
100득점 기록 달성도 정말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 광주시청 김수린 개인전 우승 회장기대학실업양궁대회



광주시청 양궁팀 김  
수린(사진)이 올림픽  
제패기념 제41회 회장  
기대학실업양궁대회  
에서 여자양궁 1인자  
에 올랐다.

김수린은 지난 7일 강원도 원주국제양  
궁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개인전  
결승에서 안산(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을  
세트스코어 6-4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거리별 경기 70m에서 금메달,  
60m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던 김수린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금메달과 은메달로 기량을 끌어 올린  
김수린과 안산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  
는 2025 양궁 국가대표 1차선발전 예열  
을 마쳤다.

이승윤(광주남구청)은 남자일반부 개  
인전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승윤은 이진  
용(국군체육부대), 이동영(예천군청),  
장지호(예천군청), 정태영(코오롱엑스  
텐보이스)을 연파하며 4강까지 순항했으  
나 '북봉' 서민기(현대제철)에게 3-7로  
발목이 잡혀 결승 진출이 무산됐다.

진효성(조선대)은 남자대학부 개인전  
결승에서 슛오프 접전 끝에 문호균(한체  
대)에 5-6으로 져 은메달에 만족했다.

최미선·김이안·안산으로 팀을 꾸린 광  
주은행텐텐양궁단은 여자일반부 단체전  
준결승에서 현대모비스에 3-5로 패해 동  
메달을 차지했다.

최동환 기자

## 동강대 야구부 16강 진출 U리그 왕중왕전

동강대학교야구부가 '한국대학스포츠  
협의회(KUSF)' U리그 왕중왕전 16강  
에 진출했다.

홍현우 감독이 이끄는 동강대 야구부  
는 지난 6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U리그 왕중왕전 흥익대와 첫 경기에서 7  
-4로 이겼다.

지난 4월 U리그 조별리그 패배를 설욕  
하며 16강에 진출한 동강대는 9일 오후  
3시 목동야구장에서 지난해 왕중왕전 준  
우승 팀인 한일장신대와 8강 티켓을 놓고  
다툼다.

이날 동강대는 에이스 김유현(2년)이  
선발로 나서 3.1이닝동안 15타자를 맞아  
삼진 4개, 2피안타로 무실점 호투하며 팀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김유현과 함께 지난 6월 '2024 한중  
국제야구 교류전'에 출전한 안방마님 최  
석준(2년)은 4번 타자로 나서 2타점 2루  
타를 터트리는 등 맹활약했다.

동강대 야구부는 앞서 U리그 조별예선  
에서 개막전 이후 3연승을 달리는 등 광  
주지역 팀 가운데 최고 성적을 거두고 왕  
중왕전에 진출했다.

한편 지난 2004년 창단한 동강대 야구  
부는 매년 꾸준한 성적으로 대학야구 명  
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강대는 전국대학야구대회 2014-  
2016년 하계리그 3연패 위업을 달성하며  
우승기를 영구 보관 중이다.

최동환 기자

## 광주시청 김영건 금빛 스매싱

### 2024 파리 패럴림픽

### 탁구 남자 단식 MS4 금메달 "단식서 잘 풀려... 해피 엔딩"



한국 장애인 탁구 국가  
대표팀 김영건(광주시  
청)이 금빛 스매싱으로  
2024 파리 패럴림픽 한  
국 선수단의 목표 초과 달성 선봉에 섰  
다.

김영건은 8일 오전 프랑스 파리 아레나  
파리 슈드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탁구 남자 단식 MS4 금메달 결정전에서  
완차이 차이우트(태국)에게 3-2(6-11,  
11-9, 11-7, 9-11, 11-5)로 역전승을 거  
두고 정상에 올랐다.

앞서 김영건은 김정길(광주시청)과 남  
자 복식 MD8, 이미규(경북장애인체육  
회)와 혼합 복식 XD7에서 호흡을 맞췄  
으나 모두 8강에서 고배를 마시며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이번 대회 마지막 기회인 남자 단식에

서 절치부심한 김영건은 결승에서 차이  
우트를 상대로 첫 게임을 내줬으나 두 번  
째 게임과 세 번째 게임을 가져오며 역전  
에 성공했다. 하지만 네 번째 게임을 내주  
며 마지막 게임까지 이어졌고, 5게임 시  
작과 함께 내리 6득점에 성공하며 확실한  
기선제압에 성공한 뒤 11-5로 여유 있게  
금메달을 확정 지었다.

패럴림픽 무대 첫 도전이었던 2004년  
아테네 대회에서 남자 단식과 단체전 2관  
왕에 올랐던 김영건은 2008년 베이징 대  
회에서는 노메달에 그쳤으나 2012년 런  
던 대회에서 남자 단식 금메달을 차지했  
다. 이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  
서 남자 단체전 금메달과 남자 단식 은메  
달을 목에 걸었고, 2021년 도쿄 대회에서  
는 남자 단식과 남자 단체전 모두 은메달  
에 만족해야 했다.

김영건은 이번 대회 남자 단식에서 개  
인 통산 다섯 번째 패럴림픽 금메달을 거  
머쥐며 한국 선수로는 사격의 김인연과  
함께 최다 금메달 공동 2위가 됐다. 역대  
최다 금메달은 개인 통산 7개를 차지한



한국 장애인 탁구 국가대표팀 김영건(광주시청)이 8일 오전 프랑스 파리 아레나 파리  
슈드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탁구 남자 단식 MS4 금메달 결정전에서 완차이  
차이우트에 역전승을 거둔 뒤 포효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탁구의 이해론이다.

김영건은 금메달을 확정 지은 뒤 믹스  
트존 인터뷰를 통해 "지난 4월에 어깨 관  
절이 탈구됐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장파열도 겪었다"며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았는데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여  
기까지 왔다. 금메달을 따 너무 기쁘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2020 도쿄 패럴림픽에서는 열심  
히 준비했음에도 은메달 두 개에 그쳐 무  
척 아쉬웠다"며 "이번 대회를 앞두고 상  
대에 대한 대비도 많이 했고, 영상 분석도  
신경 썼다. 결승 상대였던 차이우트는 정  
면에 강한 선수여서 코너 쪽을 많이 흔들  
려고 했는데 잘 통한 것 같다"고 덧붙였  
다.

한규빈 기자